

# STILL THERE

09.13-09.22  
2018

기획 박찬이

참여 김경태  
박예나  
신현정  
전명은

“존재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감각하기”

전시 [STILL THERE]은 감각의 주체인 ‘나’가 수동적으로 감각해 오던 우리 주변의 것들의 오류를 인식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오류의 한 예로 미세먼지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를 감각하며 살아왔을까. 비가시적인 미세먼지를 감각하기 시작한 것은 미세먼지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고 나서부터 인듯 하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수치를 통해 비가시적인 미세먼지를 감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계속 ‘나쁨’수준이었다고 한다. ‘나쁨’을 유지하던 미세먼지처럼 ‘존재’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시를 통해 새롭게 ‘감각’하고자 한다.

STILL THERE은 영화 <Before Sunset>의 대사를 인용했다. 주인공 남,녀가 완만한 산세 넘어로 지는 해를 바라본다. 여자는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아직 있네(still there)”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해가 사라지자 “사라졌다(gone)”라고 말한다. 석양이 지고 난 뒤의 해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것, 혹은 평가절하된 우리 주변의 것들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되돌아 본다. 우리의 감각은 일상적으로 일반화되고 수동적이 되어 왔다.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장소, 수치, 역할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장소적으로는 해방 후 넘쳐나는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금의 쪽방이 되어버린 시대여관의 공간적 측면을 짚어볼 수 있다.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나뉘어져 버린 1,2층 총 22개의 방들은 하나도 같은 각도, 같은 크기가 없다. 수평조차 맞지 않는 창문들은 시멘트나 합판으로 메워져 모양만이 그 존재를 대신한다. 이렇듯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

뒤진 공간들은 시대여관의 철거되기 직전의 뚫려있는 벽들을 통해 막히고 닫혀져야만 했던 감각의 층위들을 새롭게 연결시켜 준다.

수치적으로는 신체의 감각을 미술적 언어로 표현한 신현정 작가의 **sun drawing**을 말할 수 있다. 작가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 했을 당시 강수량이 적고 뜨거웠던 여름 남아도는 열기와 한시적으로 머무르게 된 주변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보통 수치로 표현되는 신체감각의 변화들을 작가는 몸의 감각을 통해 표현된 썸드로잉 시리즈로 색다르게 접근한다.

역할적으로는 시각의 청각화를 시도한 전명은 작가의 [새와 우산]과 청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는 폴리 영상 [젖은 새, 몸을 털며]를 들 수 있다. ‘본다’라는 다소 일차원적인 감각에 소리를 넣고 상황을 만들어 하나의 이야기로 승화 시키는 그의 작품은 ‘보는 것’에서 그치는 시각의 역할적 경계를 넘나들게 한다.

김경태 작가는 ‘포커스 스타킹’기법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작은 사물을 확대하여 촬영할 때 쓰이는 방법으로 작은 물체를 근접하여 촬영하게 되면 초점이 맞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극단적으로 흐려지게 된다. 이때 작가는 카메라를 조금씩 단계별로 전진시키면서 촬영한 이미지들 중 초점이 선명한 부분만 합성을 해서 하나의 전체가 선명한 이미지를 완성시킨다. 원근감이 사라진 작업은 대상의 크기를 인식할 수 없게 하며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표면이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박예나 작가는 움직임의 기반으로 작업을 한다. 존재와 인식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는 지구처럼 과정 가운데에 둔다. 결국 감각하는 것을 앞으로의 계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존재’, ‘인식’, ‘감각’이라는 세계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오프닝 퍼포먼스로는 감각의 주체인 ‘나’에 대한 질문과 물음을 던지며 전시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감각 주체인 ‘나’에 대한 질문과 물음으로 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